

광우병과 탈 쇠고기 문화에의 도전

박영숙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지난 2월 한 달은 온통 광우병 소동으로 법석거렸다. 그 바람은 우리 나라의 쇠고기 소비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멈칫하게 하는 데 주효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우리 나라에서는 광우병의 발병 우려가 희박하다고 설파하는 가운데 대통령을 필두로 농수산부 장관과 소비자 보호 단체의 알려진 얼굴들이 대거 쇠고기 소비 관측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광우병 신드롬의 파장은 식당은 물론 일반 가정의 식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 손님을 위한 식탁에 쇠고기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고민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고 볼 일이다.

구미 국가에서 비롯된 쇠고기 문화가 인류 문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는 광우병으로 인한 공포가 오늘처럼 크게 부각되기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던 터였다. 쇠고기의 대량 소비가 지구 환경, 세계 경제와 식량 문제 그리고 인간의 건강

문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데서였다.

1992년 출판된 『탈 쇠고기 문화(Beyond Beef-The Rise and Fall of the Cattle Culture)』, Plumm』라는 책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담은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유전자 공학과 핵기술의 비판자로서 현대 미국의 대표적인 문명비평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로는 『유전자 공학의 시대(Who should play God)』, 『엔트로피의 법칙(Entropy)』, 『타임 워즈(Time wars)』, 『생명권 정치학(Biosphere Politics)』 등 다수 있다.

『탈 쇠고기 문화』는 쇠고기를 통해서 근대 문명을 비판한 것으로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쇠고기론은 역사, 인류학, 의학, 생물학, 생태학, 경제학, 심리학, 신학 등 다양한 프리즘을 통한 심층적인 인간문명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1960년대에 농약의 폐해를 파헤쳐 세계인에게 충격을 준 바 있는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 필적할 만한 역작이다.

유엔의 식량과농업기구(FAO)의 1989년도 연감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 12억 8천만 두의 소가 있다. 세계 인구의 4명당 한 마리의 비율로서 소의 무게가 전인류의 무게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들은 지구의 육지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이 영양 부족과 만성적인 기아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곡물 전생산량의 1/3을 소(1kg 생산에 7kg의 곡물 소요)와 그 밖의 가축의 사료로 소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70%의 곡물을 식량이 아닌 사료로 소비하고 있다.

식량 경제학자인 프란시스 무어(Francis Moore)는 '곡식을 먹여 키운 고기 중심의 식생활 체계는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

나라 환경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 근거로 ① 물낭비이다. 쇠고기 4.5kg을 생산하는 데 한 가정이 1년간 쓰는 양의 물이 쓰여진다. ② 열대우림을 파괴한다. 햄버거 하나 만들기 위해 5평방미터의 삼림을 훼손하고 있다. ③ 에너지 낭비이다. 미국의 4인 가족의 연간 쇠고기 수요 충족을 위해 약 1천 l의 화석 연료가 소모된다. ④ 지구온난화의 촉진이다. 초지 조성, 사료 생산, 축산 과정이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배출원이 되고 있다.

리프킨은 여기에 더해서 쇠고기 문화의 윤리성을 지적한다. 풍요한 사람들의 쇠고기 수요를 지탱하기 위해 발전도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빈곤을 강요하고 있는 쇠고기 문화가 인류 역사상 불평등을 만들어 낸 원흉이라고 힐난한다. 그는 곡물이 사료인가 식량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세계의 중대한 정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쇠고기 문화가 발전도상국의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약자들의 희생으로 생산된 쇠고기를 먹는 선진국 사람들은 육식 중심의 식생활로 인한 “포식병”에서 비롯되는 심장병, 뇌졸중, 간질환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폭력 현상을 두고 리프킨은 “보이지 않는 죄악(cold evil)”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균형을 잃어버린 오늘의 사회상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광우병 사태를 예견하고였을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TV 보도는 유럽에 이어 남미와 중동에 이르기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어 전세계에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제 돼지고기도 먹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을 두고 육식 문화의 재앙이라고들 한다. 지금 인류는 육식을 즐긴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2월 28일자 뉴스위크 지에 토니 에머슨(Tony Emerson) 기자는 '쇠고기는 어디에?' 라는 제하의 글을 실고 있다. 유럽 가정의 식탁에서 쇠고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쇠고기의 수요가 프랑스에서 47%, 이탈리아에서 75%가 떨어졌다. 광우병의 여파가 미식가의 본향인 파리에서 채식 요리 개발에 열을 올리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10-20년 후에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광우병을 대처해야 한다는 데서이다. 쇠고기가 안 팔리는 대신 여타 육류의 매출이 치솟고 있다고 한다. 폭발적인 수요 충족을 위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외한 다른 육류의 대량 생산이 또 다른 재앙을 불러들일 우려는 없는지 지켜 보아야 할 일이다.

광우병의 위협으로 이미 유럽인들의 식습관에 변화가 일고 있다. 채식주의자가 증가하고 식품 산업은 '유기농'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이들도 대량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농약에 찌든 식품 등에 대한 논란이 그 증거이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광우병을 계기로 거간의 비난거리였던 대량 생산 체계인 '공장형 농업'과 '기업형 축산'에 대한 정치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82%의 인구가 공장형 농업 폐지를 지지하는가 하면 70%는 20%의 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유기 농산물을 살 용의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채식과 환경운동 또는 유기 농산물과 환경운동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지 못한 속도 조작이나 생산량 조작이 파멸을 향해 가는 이정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한계가 분명한

지구촌에서의 인위적인 무리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증가 추세에 있는 세계 인구를 끌고루 먹여 살리면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요에 따른 공급 위주의 전략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 리프킨은 이 문제에 대해 우선 소의 수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켜야 한다고 한다. 구미를 비롯한 쇠고기 다소비국의 소비자 개개인이 자유 의사로 쇠고기 소비를 줄이는 결단을 하기만 한다면 금세기의 잘못된 인공적인 단백질 생산 체계가 변화될 것이다. 쇠고기의 소비를 줄이는 사회적인 결단은 새로운 세기의 인간 생존을 위한 경제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리프킨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새 세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풍요한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칼로리 양을 줄인다면 지구가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의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며 역사 이래 가장 광범위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부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육식 문화에서의 탈출은 하나의 의식 혁명이며 우리 자신을 변혁하는 것이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의사 표명이라고 한다. 광우병이나 구제역의 위협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인간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탈 육식 문화에 도전 해야 한다.

뉴스위크 지가 『탈 쇠고기 문화』에 대한 서평을 하면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1/3파운드의 간 고기를 약 4분간 구워서 빵 사이에 끼워서 먹고 있는 햄버거를 오랫동안 찾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책은 쇠고기의 세계 총생산량 23%를 소비

하고 있는 쇠고기 대국인 미국을 격노하게 한 것은 물론이다.

오늘날 52개 국가에 1만2천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1992년도 기준으로, 60만 명을 고용하고 연간 170억 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는 세계의 외식 산업의 10% 이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세계의 곳곳의 도시에 개점되어 있는 햄버거 집에 고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햄버거의 인기는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광우병 후 유증으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알 길 없으나 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광우병 소동에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탈 육식 문화에의 도전에서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나라에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없으니 안심하고 먹으라느니, 한우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느니, 그런가 하면 동물성 사료가 일부 유입되었다는 보도와 유럽 거주 경험에 있는 사람들의 헌혈을 제한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마저 번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육류 다소비 풍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광우병 파동 이후 우리 나라에도 채식 인구가 늘고 있다. 이 일의 확장을 힘쓰는 운동체도 생겼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된다면 광우병이나 구제역의 재앙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 육류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해 소비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 환경정화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환경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국민의 건강도 지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식 문화에도 깊숙이 자리하게 된 쇠고기 선호가 우리

나라의 쇠고기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 접시의 쇠고기 음식이 얼마나 많은 물을, 곡물을 그리고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1960년대의 “침묵의 봄”이 농약의 위험에 대한 인류의 깨달음의 촉발제가 되었다면 1990년대의 “탈 쇠고기 문화”는 쇠고기 문화가 미래의 인류 문명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경고로서 현세대인은 받아야 할 것이다.